

2015년 4월 29일 선생님 명설교(편집본)/1998.524(인천대학교 대운동장)

주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할 것이다

본문 : <출 4:10-17>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금주의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가겠노라고, 천성을 향해 가겠노라는 이 노래로 말씀과 더불어 제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오겠지만 “모세처럼 말을 많게 하지 말고, 떠나라. 가라. 네 시간을 맞추겠느냐. 내 시간을 맞추지.” 하고서 역시 하시는 하나님!

“입이 둔해서 못 간다. 이래서 못 가겠다고 하지 말고 가라! 천성을 향해서! 사명지로 가라! 모세가 그 무시무시한 그 애굽 땅으로 맨손 쥐고 들어가듯이 가라!

6.25때 총 가지고 못 당하니까 포탄 메고 들어가서 터뜨려서 탱크 하나씩 때려 부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도 하는데 뭘 못 가느냐.“

못 간다 하니까,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좀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고, 의식을 풀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라. 천성문만 바라보고 가라. 이 사명을 잘 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체 찬양이 되겠습니다.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2.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3.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쫓지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본 지역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아, 아, 안 들립니까?

운동장이 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들립니까?

다음부터는 멀리 앉지 말고 바깥 와요. 뭐 하러 저 멀리까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단상을 저쪽에 놓든지.

청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가까워야 합니다. 멀면 마이크 소리라도 잘 안 들립니다.

선생님은 팡팡 외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웬고하니, 마라톤 선수같이 오랫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막 외치면 목을 금방 버려 버립니다. 목이 쉬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가까이 가서 앉으십시오. 혼자 일어나기가 미안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들려요?

이 사람들은 아주 지능적인 사람입니다. 저 뒤에 있으면서 안 들린다고 하면서 안 들리니까 가야지 하고서 앞으로 막 뛰어 나온 것입니다. 거기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면 하겠습니까.

어제 인천 토요일 말씀 집회를 하고 오늘은 주일을 지키러 왔는데, 지난 한 주일간에는 작고 큰 곳을 돌면서 집회했습니다. 속초, 춘천, 그리고 충주, 그리고 월명동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금 작업 방향을 지시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어제 인천 집회하러 올라 왔습니다.

어제 와 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특히 인천만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인천 시내에서 제일 걱정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소단위 모임들도 걱정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했을 것입니다. 제일 걱정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걱정이 안 했는데, 그렇게 걱정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걱정이 안 되었느냐?

‘설마 내가 설교를 하는데 비가 새랴? 걱정이 첫째로 안 된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면 주일날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걱정이 덜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가 뭐 원자폭탄입니까? 까짓것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비가 무슨 농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비를 맞으면 훑어내면서 하면 됩니다.

나야 원고는 없고, 성경은 품으로 갖다 댔겠다, 까짓것 입에 물만 안 들어가면 합니다.

그렇게 전도대회 겸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피하지 않고 말씀을 외쳐주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가 없을지라도 너희도 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를 빼고서는 3가지의 죄가 생각납니다. 연대죄, 자범죄, 유전죄!

그것을 했더니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오직 죄는 만 것 아니다. ‘불순종도 죄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 붙어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본래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과 겨루는 일이 있고, 여러 분들은 나와 겨루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것도 큰 죄 중의 하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돌이키고, 나로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동적 비사의 교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고, 사도바울도 그러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것은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큰데, 문제는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죄 문제를 먼저 보고 복을 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죄를 문제를 보고 은혜를 줍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는데 은혜를 주면 은혜가 죄로 변해서 결국 다른 색채를 띵니다. 죄가 있는데 복을 주면 그 복이 화로 뒤덮여 버립니다.

이런 법칙과 이치를 볼 때에 우리는 깨끗이 청소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하늘을 좇아 행함이 온전하다고 말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느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 돌려서 ‘이제 가라. 회심했으면 떠나야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떠나서 이미 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회심되었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짚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도 못하고 능치도 못한데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바닥도 뻗뻗하고 둔해서 정말 말을 못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병어리를 만들었느냐. 귀머거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눈 밝은 자를 왜 누가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모세가 입을 떼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능력 주는 자는 못 할 것이 없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고, 입이 둔하면 입과 함께할 것이고, 머리가 멍청하면 머리와 함께할 것이고, 손이 게으르면 빠르게 해 줄 것이다.”

모세는 그래도 계속 보낼만한 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기본이 있는 사람을 보내면 더 쓰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이 말을 잘 하고, 아주 말을 잘 하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면 더 잘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을 시키나 저 사람을 시키나 뭐이 차이가 있습니까. 동생을 시키나, 형을 시키나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지, 그러나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입이 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에 능통하지 못하고 제갈공명이 아닙니다. 우리 형님은 제갈공명은 아니라도 그래도 제갈공명의 그늘을 받은 정도는 됩니다. 이왕이면,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다. 아론은 말을 잘 하니까 거친 것은 먼저 하도록 하고, 너는 초근초근 조용히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명을 하게 하려고 한다. 아론도 내가 다 준비해 놔. 아론도 쓰려고 한다. 거친 일은 아론이 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아론이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네가 근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해.”

갈 데가 있습니까? 그 놈도 쓰고, 너도 쓴다는데. 이래서 결국적으로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오늘 목시로 왔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줘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리라. 아론에게도 이렇게 말해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인데, 너는 가서 몇 마디만 하고 얼굴만 비추면 되잖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일은 다 그가 할 것이니까.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가 있잖아. 이미 쥔고 다니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 줄 알아? 그것은 너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야. 내가 길 나쁜 데 가다가 넘어질까 봐 준 지팡이로 생각하느냐? 나이도 그렇게 안 먹었는데 뭐 그 지팡이가 필요해? 품으로 준 것이 아니다. 다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근사한 지팡이를 너에게 준 것이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가서 휘젓고 한번 해 봐. 별일이 다 일어 날 것이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툭 부러뜨리면 부러지는 지팡이 같은데도 그렇지 않아. 가서 해 봐. 내가 일일이 이 얘기 저 얘기 못하겠어. 내가 가서 행할 때 놀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망과 어둠과 고역에 몸부림치는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향해서 애굽이 못질해 놓은 그 백성을 향해서 가는 모세의 모습은,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 모세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아론은 아론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를 안 보냈다면,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천상 모세가 가야 됩니다. 왜? 모세는 빼냈기 때문에 모세 외에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모세를 아예 빼 놓았습니다.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모세를 보내려고 아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다니까 웃기는 일이었지요. 이미 모세를 보내려고, 날 때부터 이미 모세를 갖다 놓고 연단시키고, 그 다 죽는 판국에 모세만 왕궁으로 불러들여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데 모세는 고생을 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생을 안 하고 왕궁에서 크게 되니까 거친 세계를 하는 데에 상당히 미약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엇그제께 월명동 감나무 밑에, 야외 감나무 밑에 직무실에 보면 소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사왔는데 충주 근방에 가서 사왔습니다. 순회 기념으로 소나무 한 그루를 사왔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을 사러 갔었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돌이 있으면 또 사오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소나무 주인이 “이 소나무가 참 멋있습니다. 제가 좋은 돌과 바꾸어 났는데, 내가 그것을 4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고, 이거 팔라는 소리를 못하겠네요. 내가 사 간다면 팔겠습니까?”

“충재님이 사 가신다면 그냥은 못 드려도 줘야죠 뭐.”

“내가 돌을 사러왔는데 왜 소나무를 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재를 좋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 전에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이 소나무가 강하다고 물어보았습니다.

“강합니까? 어디서 길렀습니까?”

“밖에서 길렀습니다. 바깥에서 막 길렀습니다. 나는 돌을 취급하니까 소나무에는 물만 줬습니다. 막 취급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니까? 그러면 내가 사 가겠습니다. 약하면 죽으니까 강하면 내가 사 가겠습니다. 혹시 추우면 들여놓고, 바람 불면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영하 17-18도에서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사 왔습니다. 강하다고 해서 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강한 사람을 진도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뭐이고 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강하고 행실도 강하고! 어느 정도 말 펀치도 있어야 되고. 믿어지게끔.

그 소나무를 갖다 났는데 깐깐하더라는 것입니다. 강해야 됩니다. 돌도 강해야 합니다. 돌도 부석부석한 돌은 다 빼내버립니다.

강한 돌만 씁니다. 오석이나, 애석이나 그 강한 돌! 호피석 같은 것! 이런 호박돌 같은 강한 돌. 4개의 돌을 썼는데 아주 강한 돌들입니다. 강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했습니다. 강팍한 놈들에게 강한 놈을 보내야 하는데, 모세를 보냈습

니다. 모세는 약한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강해진 이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막자란 것 같아도 그 놈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막자란 사람 같아도, 거기서 비바람을 스치고 맞히면 강해집니다. 거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도 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대개 순했습니다. 산에 있을 때는, 집에서 그대로 기도생활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도할 때 보면,

“아, 입 좀 닥쳐. 자네 차인가? 전세, 언제 냈어? 아, 조용히 해, 혼자 탄 차가 아니잖아. 젊은 사람이 이치를 알 텐데 이치를 모를까. 여기서 소리를 껍뻍 지르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나도 스님이지만 너무하잖아. 나도 목탁 치고 싶지만 차 안이기 때문에 쉬고 있잖아.” 이럴 때마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속이 텅 타서 목탁을 덜 때리는 것입니다. 속이 타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고승 같으면 목탁을 칩니다. 감동이 오면. 당신은 지금 감동이 안 오니까 못 하잖아. 목탁 안 치잖아. 나는 감동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감동이 오면 입에서 말이 튀어 나오잖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스님! 같은 종교인들끼리 왜 하는 일을 막습니까? 나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그 러면서 오히려 한 술 더 떠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싸워버릇하고 커 버리니까 강해졌습니다.

“전세 냈나?” 하면,

“그럼 당신은 전세 냈어? 어디 시내 버스가 전세 버스가 있어? 잠잠하라.”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고 고요하라 하듯이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 다.

이와 같이 자꾸 대면하고 싸우니까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대면해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가서 환경도 굉장히 힘들지만, 가서 딱 부딪혀 보면 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좀 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강의를 잘 못합니다. 전도할 때 어둔합니다. 나는 경험이 없어서 지도를 잘 못 합니다. 무엇을 말기면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와 같은 입장이 여러분들의 입장입니 다.

지난주에는 잘못했다고 회심했습니다. 이제는 “가라!” 했습니다. 가라고 했더니 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구, 나보다 누가 더 나은데... 나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 더 나은데...”

“아, 그 사람도 말쑥다. 거친 것은 개가 하고, 약간 덜 거친 것은 네가 하면 되잖아. 조리 있게 뜻있게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가슴에 심정에 와 닿게 하는 것은 네가 해.”

모세는 심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론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발판을 쳐주고 밀어붙이고 거친

일은 아론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가 ‘내가 힘들게 이것을 하고 있지?’ 하지 말고 금주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라!

왜? 입이 필요할 때는 입을 갖고 쓰고,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발과 육신을 쓰고 나타나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여 말을 할 것이다. 나의 말이 네 입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깨닫고, 이 지역에서 이 시대의 크나큰 종교적 지도자를 뽑는다는 음성을 내가 크게 들었습니다. 음미하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고막은 나가지 않았지만 옆의 사람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는가 하면, 자기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게 간증을 해 달라고 해서 “이런 음성을 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깐 자기에게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나와 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말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정치 강연도 잘하고, 옛날 자유당 시대 때 유진산 선생을 따라 다니면서 정치 강연하고, 선거 때 유세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잘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선거 때 유세한 일이 없고, 웅변대회에 나간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웅변대회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저쪽 수련장에서 “나도 웅변해 본다.” 하고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형제들도 있는데 왜 내가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무렵을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형,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써먹지, 왜 웅변대회만 하고 있어? 나는 말을 못해서 오늘은 쫓겨 왔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지역에 종교적인 지도자를 뽑으려면 아랫집도 있고, 윗집도 있고, 몇 집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웅변대회에 나간 사람도 아니고 정치 유세 때 나간 사람도 아닌데 작은 형은 큰 형보다 말도 더 잘하니까 작은 형을 뽑는 것이 어떨습니까?”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작은 형이 말을 잘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작은 형님은 전국웅변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1등만 해도 그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1등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큰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응답을 못 받고 말았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응답을 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신앙을 건드렸습니다.

“너 도대체 있지도 않은 말을 나한테 하는데, 나는 형이기 때문에 진짜 너한테 막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얘기 하면 형이라고 누른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과 같이 얘기 좀 해 보라. 신앙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러면서 대전의 웅변 협회장을 데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회심하고 이랑골에 가서 설교해 주고 밤늦게 왔는데, 그때까지 1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를 동생이라 부르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님께 부탁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면서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네.” 그랬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만큼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고 “너무 지나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나칩니까? 당신들처럼 나는 웅변을 안 합니다. 전혀 웅변을 안 하는데, 당신들은 웅변만 하고 사는데 내가 볼 때 당신들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웅변만 하고 사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게 그런 이야기 안 하잖습니까. 지나치다는 이야기 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인격이 높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을 딱 박아 버렸습니다.

“어쨌서 내가 지나칩니까? 나는 더 해야 되고, 더 뛰어야 되고, 더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것을 뭐 지나치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탄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에게 가서, “아저씨, 너무 지나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견어붙이고. 이거 흙투성이인데, 아니 밥도 안 먹고 이것을 하이 지나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 내 머리에 쥐가 나니까 저리 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6시간을 했는데 결국 나를 못 꺾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말을 잘해서 못 꺾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말이 안 통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서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로 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앉아서, 그가 문장을 쓰길래 계속 방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냐?”

“아니, 이 말도 모르냐? 대한민국 사람이? 이 말도 모르냐?”

“스페인 말인지, 독일 말인지, 영어는 아는데 어느 나라 말이냐?”

“분명히 말이야. 내가 말하면 이것은 말이야. 개가 웅웅 거려도 말이야. 늑대가 아웅 거려도 말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문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문장을 쓸 테니까. 어려운 말을 할 테니까.”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 후에, 30년 만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문도 안 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소문이 동네방네,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잘 믿고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그래도 가다보면 얻어맞고 튕김을 받고,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고 속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맞았어도 맞았어도 금방 가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사람을 구하러 왔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뽑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서서히 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목이 되면서 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음성이 맞은 음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뽑는다고, 요 마을에서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우리 형을 딱 갖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 헛바닥이 둔하고, 헛바닥이 짹고 둔합니다.”

나는 첫째 헛바닥이 짹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오기를 혀가 짹으면 말을 빨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됐다. 네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찾았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한 사람을 찾는다.” 했습니다.

“왜요?”

“무엇을 배운 놈은 제 머리 잔피를 돌리는데 너는 못 배워서 아예 못 돌린다. 내가 말한 그대로 믿고 간다. 명칭하니.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 난는 간판이 없습니다.”

“응, 나는 간판이 있는 사람을 싫어해. 원래 내 간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이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간판을 붙여놓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정말 말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을 참 잘합니다. 입만 벌리면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자기 민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처럼, 김구 선생처럼, 이렇게 아주 민족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끼가 줄줄줄줄 흘러서 강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족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소소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본래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왕이면 한번 가는 세상, 이왕이면 한번 휘두르고 가지 뭐. 까짓것. 힘이 있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기 시작했는고 하니, 서서히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캠퍼스가 불쌍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참 불쌍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돈 덩어리를 받은 것이 없지만 정신덩어리가 새롭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옷 한 벌을 얻어 입은 것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정말로 내가 심령의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정말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고마워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정말로 저들을 기도해서 이끌어 내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라!” 해서 가라는 마음을 주니까 첫째 의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가도 되나? 정말 내가 아둔해서 가서 당하고 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의식은 의심이고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는데 의식하지 말고, 자꾸 의식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자기 부족을 의식했습니다.

의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안 부족하겠습니까?

모세는 “나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랬는데 누가 말을 못하는 줄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 나 아둔합니다.” 그러는데 아둔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아느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에 가서 “하나님, 나 진짜 멍청하고, 미련하고, 바보이고, 지혜가 없는 놈입니다. 참 머리가 나쁜 놈입니다.” 하며 막 기도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뭘 그 기도를 자꾸 하느냐? 누가 아니라고 하더냐? 니가 생색내는 것이냐? 어떻게 자꾸 듣다 보니까 네가 머리 좋다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다. 네 머리 나쁘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 정말 듣기 싫어 못 들겠네.” 이와 같이 확 찢러 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너, 인정하라는 것이냐? 인정 안 해도 너 머리 나쁜 것은 아는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는 헛바닥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담대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의식됩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쳐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 기도는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한 것을 알죠? 아시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죠?”

“부족하니까 채우겠다. 넉넉하면 니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 채울 것도 없잖아.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채울 것 생각하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내가 내 머리가 나쁘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돌로 머리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더 나빠진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돌로 때려도 보통 때린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때렸기 때문에 자살 직전에서 살아났습니다. 돌 가지고 팡팡 때렸더니 이마가 불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살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슴을 치며 돌로 때려서 죽는 자살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자살, 할복자살, 음독자살, 목매는 자살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생각하니까 목을 매달아 죽자니 한참 혀를 빼물고 죽을 것이고, 철도자살을 하려고 기차에서 뛰어내리자니 뛰어내렸다가 만약 안 죽고 팔뚝만 끊어지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나는 몇 번이나 뛰어내리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와서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외치는 것도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뭘 그리 쳐다봐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한번은 중고등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 기차에 타서 사람이 팡 차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내가 같이 탄 것입니다.

“뭘요? 뭘요” 그랬습니다. 금방 표가 나지요. 고등학교 선생들 외의, 나머지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봅시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방향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분명히 밖에서는 예수님께 내가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를 팡팡 쳐놓고 들어가면 못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들이 화투를 치다가 나를 보고, “아까부터 왔다갔다 하는데 도대체 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흠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아닙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여기는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뭘니까?”

그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단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하면 딱 돌아오겠는데, 5분만 하면 다 하나님을 다 믿을 것 같았습니다. 감동만 시키면 끝나잖아요. 그때가 1년에 만 명씩 하기 전에 조금씩 맛을 들일 때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뭐냐고 하면 “나,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갔는데, 선생들은 화투를 치느라고 내가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저기 누가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한국 청소년 지도 요원인데, 여러분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도 듣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한마

디 해 주려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해요.”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그 입이 안 열거렸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음! 음!” 하고 그냥 또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너 같은 것은 뒤져라. 가! 안 가? 꺼져. 너, 보기 싫어. 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차 안 화장실에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진짜 내가 보기 싫었습니다.

“죽어 버려. 예수님 앞에 몇 번이나 맹세하고, 한다 해 놓고 못 하고, 너는 죽어야 돼.”

그때 당시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것은 못 쓴다고 죽으라는 거구나.’ 하고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 굉장히 빨리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너 같은 것은 죽어 돼. 일단 죽어버려라. 죽자.”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단순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멍매기 콧구멍만 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손 놔. 안 놔? 빨리 놔!”

그런데 손 잡이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놔! 빨리 놔.”

그런데 안 죽으려는 미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빨리 놔!”

그래도 딱 잡고서 안 놓더라는 것입니다.

“빨리 놔! 빨리.”

그런데 역시 육신이 안 죽으려고 했습니다. 영혼은 내에서 “너는 죽어라.” 했습니다. 영혼은 죽어도 자기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육신은 끝나니까 육신이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죽으면 끝나.” 이런 입장의 싸움을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는 가운데 “너 뭐하냐? 누구랑 그렇게 싸움질을 하는 거냐?” 했습니다.

영은 죽으라고 하지, 육신은 안 죽겠다고 하지,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노라. 왜 죽느냐?” 그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눈물을 죽 흘리면서 승강장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참 하려는 마음은 많은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사람씩 놓고 하는 것이다. 하나 갖다 놓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자신 있으면 두 명, 자신 있으면 네 명, 자신 있으면 10명, 자신 있으면 100명, 자신 있으면 300명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하듯이 네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전도의 욕심을 부려도 안 된다. 자기가 그만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 만큼 하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데 하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어린아이가 사과를 한 손에 두 개나 들고 가려고 한다면 욕심입니다. 어른도 그러기 힘드니 욕심이 아닙니까? 하나를 먹고 와서 또 먹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깨닫고서 전도하는 것을 배우자 해서 배워서 나가서 하나씩 전도하고, 둘씩 전도하고, 나중에 가서는 환경 가운데 열 명도, 스무 명도 전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청중을 두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자리에 800명을 갖다 놓고 하기도 하고, 이끌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방 전도자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출하게 만들고, 그 후에 이런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생명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내가 청중 앞에 서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아야 말이 잘 나가고 사람이 적으면 말이 안 나가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중 앞에 서면 얼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청중 앞에 오면 몸이 풀려서 입이 막 돌아갑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늘 의식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육계에서는 이것을(검지) 주장합니다. “이것이 절대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계에 가면, 영계에서 쳐다보면 이것이(엄지) 보입니다. 큰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계에서 판단한 것은 육계에서 써먹다가 끝나지만, 영계에 넘어가서 쳐다보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다 영적인 생활에 들어가니까 기도를 하며 판단하라! 알겠습니까.

오늘도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주시기 않습니까?

“너희들이 전체가 모세와 같다. 그런 때가 있었다. 이제 다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입을 내가 만들고, 입을 내가 왜 만든 줄 아느냐? 내가 말을 하려고 하였으니, 내가 네 입이 둔하면 둔한 것이 풀 어지게 하면서 말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입장,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모세 같은 입장이다. 너희는 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 저 민족을 향해서 쫓아가야 돼.”

이미 모세 볼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400년이 끝났습니다. 종살이가 끝났으니, 옥에서 영창살이가 끝났으니 누가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나가는 날인데 보호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 언도 받고 끝나서 나가는데, 식구들도 아무도 안 오면 되겠습니까? 가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간다고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는 가둔 사람들이 투덜투덜 하겠지요. “이 새끼, 더 간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어찌고저찌고 하겠지요.

그러나 끝났으니까 내 보냅니다. 이미 탕감이 끝났으니까. 연대적인 죄가 끝났으니까. 400년이 끝났으니까 나온다! 가서 받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덜투덜 하지만, 바로가 개든다, 뭐가 개든가 하지만. “아이구, 정말로 심정 태우네. 할 말 더럽게 없네.”

끝났다 그것입니다.

“끝났으니까 너 가라.” 그것입니다.

“가서 누가 지랄하면 내가 함께해서 대화해서 꼬집어낼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탕감이 끝난 사람에게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의 세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이미 탕감이 끝난 것입니다. 형벌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탕감 끝났으니 가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 민족도 저 일본한테 40년 동안 받았습시다. 끝났지요? 그 기간이 끝나니까 나오게 됐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해 보려고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하다가 반기 든 자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40년이 끝났을 때는, 1905년도에 시작되었는데 1945년에 내가 나오고서 해방된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해방됩니다. 내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내가 쫓아다니면 본인이 해방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945년이 되니까 딱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를 딱 맞춰서 탕감이 끝나고 형벌이 끝나면 해방인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이제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방이 끝나면 지도자가 나타나듯이, 우리들도 탕감이 끝났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탕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복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오면서 투덜투덜 했습니다.

“아이구, 거기가 오히려 낫다. IMF시대에 영창에 앉아 밥 먹는 것이 좋은데, 돈 내는 것도 없고. 아이구 왜 내가 이상세계에 간다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투덜대면 그 짝이 나서 신광야에 집어 던져 놓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더 다음 세계를 허락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들여보내지는 않지만, 거기서 투덜대면 더 다음 세계로는 안 보내서 가나안의 세계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덜대지 말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뭘 하나님 앞에 투덜댁니까? 성자 되시는 메시아도 투덜대지 않는데 뭘 그렇게 투덜댁니까. 하나님 앞에. 투덜댄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면해서 안 되겠으면 꼭 눌러놓고 가십니다. 야곱도, 모세도, 선지자 요나도 모두 그렇게 해 났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줄때 사람이 다른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시대에 적절하게 전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갑니다.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시 받을 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이 주일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 말씀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나는 인천 대학교에서 주일합동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천에서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누구 덕분입니까? 내 덕분입니까? 여러분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덕분으로 일단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름이 끼었지요? 그래서 얼굴도 안 그슬리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늘나무 밑에 앉은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늘에 앉게 되어서 고맙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무색하다는 것입니다.

인천만큼은 오늘 꼭 비가 온다는 사실 예보가 떨어졌는데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조금 더 환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가 올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좀 더 질게 가려 주십시오. 지금은 구름이 얇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좀 더 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금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리쿵저리쿵, 이러니저러니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과거보다 못하니,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 싼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가나안 복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간 젊은이들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듯이 환경과 처세 속에 기쁨을 누리고 이상세계를 누리면서 “인생 100년이 너무 짧다. 1000년은 살아야 하는데! 아~” 하면서 보람 되게 인생을 살았는데, 싼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100년이 너무 깁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100년...” 하니까 “몇 년 살래?” “그냥 우물쭈물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살다 싼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잘 안 들려도 분위기만 보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아,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럼, 얼마나 멋들어지는 세계입니까.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하나가 나타났다고 세상이 떠들썩하겠습니까?

온 지구에 떠들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떠들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몇 백 년에 하나씩 나오고, 몇 천 년에 하나씩 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요즘은 돈도 없는 판국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할 것이다!!

말 잘 하면 되잖아요. 네 입과 함께할 것이니 가라!!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핑계를 다 버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지팡이가 있지요? 여러분들, 지팡이 없어요? 무슨 지팡이입니까? ‘말씀’ 가르친 것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더니 “어쩌면 저렇게 빈틈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저 말씀을 가지면 다 뒤집는다.”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뒤집겠다고 했습니다. 큰 사람은 크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잖습니까. 말씀! 나도 어디가도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 빼놓고 하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30개론 빼놓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30개론 하나만 딱 하면, 확 나타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와!” 합니다. 놀라 자빠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를 휘둘러야 됩니다. 말씀! 마치 철창을 가지고 장독을 깨부수듯 깨부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깨부수듯이.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 능력의 지팡이를, 말씀의 지팡이를 휘둘러야 됩니다. 오직 나를 누구인지 깨닫고 휘둘러야 위력이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고 휘두르면 위력도 없습니다. 휘둘러봐야 자기만 다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말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이 있잖아. 네 형이 있잖아. 아론이 있잖아. 말 잘 하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를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 어쩔 거야. 안 갈 것이냐? 안 가면 뭐 할 거냐?”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요...”

“최후의 핑계가 자기의 부족으로 돌리더라.”

대개 보면, 최후의 핑계가 뭘 줄 압니까. 자기의 부족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너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럼 네가 뭐 차고 넘치는 사람이냐? 부족하지.”

“하나님은 왜 부족한 사람을 쓰시지요?”

“그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묻기는 뭘 묻냐? 속상하게 해 놓고 자꾸 그런 것을 물으면 대답할 것 같아? 꺼져.”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가 - 겠습니다!”

“가자. 내가 있잖아. 너 이제 봐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굉장할 것이다. 야곱도 안 간다고 하더니 내가 한 번 발로 걷어차서 환도 뼈를 부러뜨려 놓으니까 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 야곱이 “누구입니까?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음, 내가 축복을 해 주는데, 이름은 묻지 마. 너는 이제 한 가정의 야곱이 아니다. 민족적인 이름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민족적 이름을 받아서 한 민족을 이뤘지 않습니까. 야곱 족속을 이뤘습니다.

요나도 그전에는 소선지자로 별것도 아니었는데 12만 명을 한번 넘어뜨리고 왔더니 “요나, 요나.” 이와 같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큰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전에 예수님께 대들고 꺾박했던 것이 한번 꺾여지더니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외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태어나서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담했다가 장담했다고 하나님이 까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과감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 모세가 “그래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모세가 이래도 안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14절에 나왔잖아요. 노를 발하셨습니다. 노를 발해도 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노를 발했는데도 안 갔으면 하나님이 “아, 내가 졌다. 나 졌다. 너 성격이 대단하다. 야, 너 진짜 자포자기 일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정녕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든 끌고 가서 그 뜻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중심자에게 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부에게는 그렇게 안 대합니다. 왜? 법이 다릅니다. 임금의 법과 백성의 법이 좀 다릅니다.

일반부들은 어떻게 하시고 하니, 재수가 좋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고생하면서 옥에라도 갇혀서 일생을 갈 것이고, 재수가 없으면 그날부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거울을 봤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이 되어 주신다니까.

이러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 나가십시오.

전국과 세계의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식하지 말고 가야 하겠습니다.

<기 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했습니다. 묵시했습니다. 묵시를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은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일어나서 가라. 때가 어느 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외쳐라! 무지몽매한 그들에게 너희가 능력의 지팡이로 전하라.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중심한 전국 온 지구촌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 빛을 발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빈 평안이 이들에게 영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모두 회심하고 온전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깨닫고 열심히 말씀대로 삶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